

3·1절 전국마라톤

■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4년만에 패권 되찾아 기쁨 두배”

폴코스남 김동욱씨

“4년 만에 3·1 마라톤 대회 패권을 되찾게 돼서 기쁩니다.”
 ‘광양마라톤클럽’ 소속의 김동욱(44)씨가 2시간38분18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남자 폴코스부문 우승자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06년 3·1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4년 만이다.
 이번대회는 김씨에게 올 시즌 첫 완주, 앞서 참가한 두 차례의 대회에서 컨디션 난조로 기권 했던 김씨는 시즌 첫 완주



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다.
 특히 김씨는 대회 4연패를 노리던 심재덕씨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이며 명승부를 연출했다.
 김씨는 “끝까지 처지지 말고 막판 스퍼트를 하자고 생각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호남인의 자존심을 지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년간 차분한 준비...2연패 영광”

폴코스여 정기영씨

“언이여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돼 감격스럽습니다.”
 폴 코스 여자부 우승자 정기영(53·대전시 유성구)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2.195km를 완주하고 가장 먼저 결승점에 걸인했다.
 주변의 권유로 7년전 ‘58년 개띠’ 친구들과 마라톤을 시작한 정씨는 지난 2004년 대회 이후 매년 3·1절 마라톤에 참여했다. 지난 2008년에는 폴코스 부문 2위



를 기록했다.
 1년 동안 페이스를 끌어 올린 정씨는 지난해 우승의 감격을 맛본 데 이어 올해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정씨는 “오늘 비가 내리는 바람에 고인물을 피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땀 흘린 결과가 2연패로 이어져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어머니와 함께 한 우승 더욱 뿌듯”

하프코스남 신재하씨

“마라톤 대회 우승의 순간을 어머니와 함께 해 뿌듯합니다.”
 3·1절 마라톤 하프코스 남자부 우승은 경남 ‘마산 3·15 마라톤 클럽’ 소속 신재하(33)씨가 차지했다.
 신씨는 국내 마라톤 폴코스를 15차례 완주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에서는 4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10km, 하프코스, 폴코스 등을 넘나들며 대회에 출전하는 마라톤 마니아이기



도 하다.
 신씨는 “연휴를 맞아 고향집 화순에서 몸을 풀며 준비를 한데다 레이스 내내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응원 덕분엔 큰 어려움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려 앞으로 참가할 마라톤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코스 너무 좋아 부담없이 달렸어요”

하프코스여 김순금씨

“봄비를 맞으며 부담없이 달렸는데 우승으로 이어져 기쁩니다.”
 제 45회 3·1절 마라톤 대회 하프코스 여자부문은 목포 마라톤 클럽 소속 김순금(35·목포시 옥암동)씨가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이 대회에 처녀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김씨의 마라톤 실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주변의 권유로 마라톤을 시작한 김씨는 불과 3년 만에 해남과 장



흥, 전북 김제에서 열린 마라톤 하프코스에서 3차례나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김씨는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올 하반기에는 마라톤 폴코스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씨는 “비가 와서 달리가 한결 편했고 코스도 경기 운영도 모두 만족스러웠다”며 “우승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몸과 마음 수련, 마라톤이 최고”

5km남 이재식씨

“지난해 아쉽게 1등을 놓쳐서 올해는 꼭 1등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마라톤 이븐’ 인터넷동호회 회원인 이재식(29·충남 공주시)씨는 “지난대회에서 1등으로 달리다가 코스를 이탈해 아쉽게 1등을 놓쳤다”며 “결국 올해 우승하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충남 역전경기장에서 구간우승을 했던 마라톤 5년차의 이씨는 28일에는



제천 마라톤 대회 5km 우승을 차지하는 등 3·1절 마라톤 대회까지 4개의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매일 10km 이상씩 뛰는 게 이씨의 우승비결이다.
 취업준비중인 이씨는 “마라톤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다”며 “우승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 올해에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1절 마라톤은 나의 건강 지킴이”

5km여 남미옥씨

“올해도 우승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5km 여자부 남미옥(44·전북 군산)씨는 43회부터 이번 45회 대회까지 3회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다.
 마라톤 경력 5년인 남씨는 2년간의 훈련 끝에 3년전부터 5km여자부 우승을 거머쥐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남씨는 “연습에 열중한 덕분이라고 말한다.
 남씨가 처음 마라톤을 시작한 이유는



건강에 대한 욕심이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싶었던 남씨가 가장 쉽게 떠올린 운동이 마라톤이었고, 마라톤은 우승이라는 선물을 여러 차례 안겨주었다.
 남씨는 “예년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아서 이번 대회 우승이 어려울 줄 알았다”라며 “지난 2주간 마라톤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게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휠체어 탄 아빠 밀며 아름다운 완주

5km 출전 최철수·종인父子

“아들과 함께 뛰는 사실만으로도 즐겁습니다.”
 3·1 마라톤 대회에는 가족참가자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자매나 형제, 모녀지간 등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마라톤을 하러 나온 모습이었다.
 그중 어릴때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탄 아버지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5km 남자부에 출전한 최철수(42·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종인(15) 부자(父子)다.
 최씨 부자가 3·1절 마라톤에 참여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 아버지 최씨는 “지난해 아들과 함께 마라톤을 함께 뛰 뒤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서 다시 오게 됐다”며 아들과 함께 마라톤에 나온 이유를 밝혔다. 아들 종인군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최씨의 마라톤 참가 이유는 ‘아들과 함께 뛰면 그저 좋아서’ 일뿐 기록이나 완주는 관심 밖이다.
 최씨는 “(저는)휠체어를 타고, 옆에 있는 아들은 뛰면서 나란히 호흡을 맞춰 완주하

는 것이 목표”라며 마라톤 참석 의미를 밝혔다.
 종인군도 “아빠랑 같이 뛰니까 아무래도 상관 없어요. 남이 보면 꼴찌로 도착하든, 그냥 아빠랑 같이 한다는 사실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 부자는 완주했다. 아버지 최씨는 “비록 1, 2등으로 도착한 선수들이 느끼는 순위에 대한 즐거움은 없었지만 비가 온 상황에서도 우리 부자가 함께 해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봄비 가르며 희망 노래...몸도 마음도 쑥쑥

광주시 남구 소망지역아동센터

“완주해서 기분이 좋아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뛰어서 더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광주시 남구 방림동 소망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3·1마라톤대회를 통해 희망을 노래했다.
 이번 대회 5km에 참가한 김솔이(여·12·봉선초6) 양은 생애 첫 마라톤 대회에서 누구보다 열렬한 응원속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대회에 출전한 9명과 응원부대로 나선 박선우(7)군 등 16명의 아동센터 식구들

이 김양의 든든한 응원군이였다.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동센터의 꿈나무들은 해맑은 표정으로 당당하게 결승테이프를 끊으며 이날의 주인공이 됐다.
 아이들을 인솔한 생활복지사 마효진씨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의사를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대회에 참가했다”며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해냈다.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살면서 다칠 힘든 일들을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법조인들도 3·1 정신 기리며 힘찬 질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법조인들도 3·1 마라톤 대회에 동참했다.
 김양근 전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매일 테니스 클럽회원들과 5km를 달렸다. 3월 출병하는 광주마라톤 동호회 모임인 ‘광주지역 마라톤 포럼’ 의장으로 추대된 임내현 전 광주 고검장도 3년연속 하프코스를 완주하며 봄날의 경건한 추세를 함께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양근씨〉 〈임내현씨〉

폴코스 100회 완주 안병철씨

“3·1절 마라톤대회에서 목표를 달성하게 돼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달려서 철수에는 300회 완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00회 폴코스 완주’ 대기록을 달성한 논산마라톤 클럽 소속 안병철(61)씨가 결승선을 통과한 후 완주 소감을 밝혔다. 올해 회갑을 맞이한 안 씨에게 100회 완주는 뜻깊은 기록이었다.
 달리기 경력 7년째인 안 씨는 “이번 대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대회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일보 대회는 매년 빠짐없이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동호회원 40여명과 함께 달린 안 씨는 “논산에 가면 회갑 겸 100회 완주 기념 잔치를 가질 계획이다”며 귀향길에 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75세 최고령 이준수옹

“끝까지 달리고 나니 기분이 좋네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달리기는 계속 할 겁니다.”
 이번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인 이준수(75·광주시 두암3동) 옹은 결승선에 도착한 후 피곤한 기색없이 5km 완주 소감을 밝혔다.
 15년 전부터 마라톤을 해 왔다는 이 옹은 “마라톤은 내 인생과 같다”면서 “달리는 것이 생명이 되었고, 하루라도 운동을 못하면 몸이 부서져나갈 것 같다”고 짧은이 못지



않은 체력을 과시했다.
 또한 이 옹은 “건강을 위해 달리는 만큼 기록 보다는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 아침 집에서 전담대까지 5km 정도 달린다는 이 옹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10km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